

민주 대선 경선후보 8인 광주 연설회

정권교체의 심장부, 광주시민의 선택 내가 받겠다

저녁이 있는 삶

민생통합 국민통합

사람이 먼저다

훈훈한 공동체 대한민국



1 손학규

한숨과 눈물의 세월 5년이 흘렀다. 그러나 정권을 빼앗긴 데 책임 있는 세력들은 제대로 된 반성도, 성찰도 하지 않았다. 성과 성찰 없이 '돌아온 참여정부'로는 다시 정권을 달라고 할 수 없다.

'민생실패', '대선패배', 그리고 지난 4월 '총선패배'까지, 민주세력 '3패'를 불러온 무능과 무반성의 '3패 세력'으로는 결단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

올 12월 대선까지 패배하는 내리 '4패'를 앞아서 당할 수는 없다.

작년 말 야권 대통합이 이뤄졌을 때 광주·전남의 많은 민주시민과 당원 동지들이 아쉬워하신 것 잘 알고 있다. 야권 통합으로 전통적인 민주당 세력, 호남이 소외된 것이 아닌가, 엉뚱한 세력이 민주당을 거머쥔 것 아닌가 하고 우려와 걱정이 많으셨던 것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했다. 70을 내주고 30을 갖더라도 반드시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이것이 통합의 정신이다.

나라가 어렵다. 나라 갈기갈기 찢어져 있다. 무엇보다 유법발 금융위기, 불황의 먹구름이 몰아치고 있다. 차기 대통령은 양극화와 민생을 해결하고, 세계 경제위기에 대처할 '유능한 대통령'이어야 한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1997년 IMF위기의 대한민국이 '준비된 선장' 김대중을 불렀듯이 2012년 경제위기의 대한민국이 '다시 준비된 선장'을 부를 때 저 손학규가 감히 그 부름에 답하겠습니다.



2 조경태

척박한 땅 부산에서 민주당으로 5번 도전했고, 3번 당선돼 영남에서 유일한 민주당 3선의원이 됐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철학인 지역주의 극복, 동서화합, 남북 평화통일을 하겠다는 일념으로 이를 악물고 부산에서 정치를 해왔다.

그동안 선거에서 18대 총선이 가장 힘들었다. 아무도 영남에서 민주당으로 나오지 않았다.

지금 대선후보 중에 영남주자들이 있지만, 18대 총선에서 그들은 민주당 간판을 내리고 모두 숨었다. 그런데 (친노)패권주의로 인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었던 지난 4·11 19대 총선에서 참패했다. 오랫동안 총선을 준비했던 많은 분들이 경선 한번 못해보고 공천확살을 당했다.

민주당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민주당 정권 창출을 위해서 당당히 패권주의와 맞서 싸우겠다. 정치는 말로만 해서 안 된다. 정치는 이미지만 갖고 해서 안 된다. 정치는 뜨거운 가슴으로 민주화를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민생 정치를 해야 한다. 정말 착한 정치를 하고 싶다.

재벌 3세의 족벌 경영과 세습을 반드시 척결하겠다. 국민통합과 부의 재분배를 위해 소득세법·상속세법·증여세법을 개정해 재벌 세습에 따른 편법이나 불법을 원천적으로 뿌리 뽑고, 출자총액제 부활과 순환출자제를 금지시켜 비정상적인 구조를 개혁하겠다.

광주시민이 선택하면 정권교체 이뤄진다. 선봉에 세워주면 죽을 힘을 다해 정권교체 창출을 이뤄내겠다.



3 문재인

광주·전남은 제게 늘 고마운 곳이다. 제가 부산·경남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는 곳이 광주·전남이다.

광주와 전남은 민주당의 심장이다. 김대중·노무현 두 명의 대통령을 탄생시킨 민주당의 주역이다. 정권교체를 이룩해 낼 대통령 후보를 뽑는 주역을 하게 될 것이다.

이제 김대중·노무현 두 대통령 뜻을 이어가

야 한다. 박근혜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민주당 후보는 문재인뿐이다. 박근혜를 이길 수 있어서 나왔다. 지금 박근혜 후보는 군부독재가 정당했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지워야 할 치욕이다. 오욕의 역사다. 그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총칼로 정권을 빼앗은 세력이 진정한 세력인가.

대한민국 근대화는 박정희 개인의 업적이 아니다. 국민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뤄졌다. 유신독재가 사람을 죽이고 잡아 가두고 핍박할 때 박근혜 후보는 무엇을 해왔나. 호남민들이 싸우고 쟁취한 것이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역사를 되돌리려고 하고 있다. 정통 야당 민주당이 막아야 한다. 이길 수 있는 후보, 문재인이어야 한다. 지지율에서 앞서고 있다고 해서가 아니다. 김대중·노무현 직통을 이어가고 국정운영할 수 있는 후보, 시민사회와 젊은층 지지를 이끌 수 있는 후보, 저 문재인뿐이다.

이제 마음을 정할 때다. 문재인에게 힘을 모아주고 광주·전남 지역민이 키워달라.



4 박준영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대단히 중요한 자리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을 통합 운영하느냐, 분열 속에 운영하느냐다.

지금은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할 때이며,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큰 위기를 맞고 있다. 탐욕이 넘치고, 분노가 치솟고 있다. 다시 새누리당에 정권을 맡겨서는 결코 안 된다.

5·16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은 새누리당은 그동안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다. 10월 유신, 3선 개헌 때도 국민을 속였다. 모든 국민이 잘 살게 하겠다고 해놓고 재벌만 잘 살게 했다.

민주당이 경제 민주화와 복지를 이야기하니, 박근혜도 똑같이 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결국 그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

지역민들이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해줬다. 가슴에 새겨야 한다. 저는 민주당 소속 도지사로서 통합에 앞장섰다.

5년 전 민주당은 530만 표 차이로 대선에서 졌다. 예견이 됐다. 참여정부 5년 동안 국민은 피곤했다.

대북 송금 특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울먹였다.

민주당은 두 개로 쪼개졌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역사 앞에 서고대죄해야 한다.

부끄럽지만 이제 힘을 합쳐야 한다.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호남의 자존심을 세우겠다.

■ 호남 구애·광주전남 공약

25일 광주 합동연설회에서는 광주·전남이 민주당의 안방이자 야성의 만큼 호남 구애를 시도하는 발언이 많았다. 하지만, 몇몇 후보들을 제외하고 지역 공약을 제시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일부 캠프는 보다 면밀한 공약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 이날 연설회의 주요 대상이 당원들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 공약 제시는 미흡한 것으로 분석된다.

유일한 광주·전남 출신인 박준영 후보는 "호남의 자존심을 세우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손학규 후보는 "광주·전남의 선택이 민주당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려왔다"며 "오늘 감히 광주·전남의 마음을 얻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경태 후보는 구체적 지역 공약으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광주를 문화특별시로 지정하겠다"며 "광주를 대한민국 서부권 중추거점

조경태 "광주 문화특별시 지정" 김정길 "인사·예산 불균형 시정" 김영환 "5·18 유인물 뿌리다 수배돼" 정세균 "광주 기적 만들자"

도시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광주~부산 간 KTX를 건설해 동서 간의 지역의 장벽을 허물며 서울·광주·부산 삼각벨트의 축을 형성해 국가균형발전을 완성하겠다"며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추진하다 실패했던 대기업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겠다. 광주와 전주에 국내 10대 대기업을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후보는 "광주·전남은 제게 늘 고마운 곳이다. 광주와 전남은 민주당의 심장이다. 김대중·노무현 두 명의 대통령을 탄생시킨 민주당의 주역이다. 정권교체를 이룩해 낼 대통령 후보를 뽑는 주역을 하게 될 것이다"며 주저해왔다.

김정길 후보는 "광주·전남과 각별한 인연을 맺고 있다. 광주에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 1년을 살았다. 제 처가가 고향이다"며 인연을 강조한 두 "소외된 호남을 위해서 인사와 예산 측면에서 소외된 만큼 더 배정해서 영남과 호남이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두관 후보는 "목포의 눈물을 잘 알고 있다. 전라도의 실용을 잘 알고 있다. 무등산의 꿈을 잘 알고 있다. 목포의 눈물을 닦아드리겠다. 전라도의 실용을 풀어드리겠다"고 말했다.

공약으로는 "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이고 원대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울산을 뛰어 넘는 광주 자동차 신도시를 건설하고 광주~목포 KTX,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균형예산 2배로 늘리고 첨단 농업으로 호남농업을 살리겠다"고 말했다.

김영환 후보는 "80년 5월 당시, 전두환의 광주시민 살육작전"이라는 유인물을 인쇄, 광주의 참상과 진실을 알리고자 서울 구석구석에 뿌리다 현상수배자가 됐고 그후 '광주 5월'을 잊은 적이 없다"며 "호남의 아들로, 저의 아내를 광주의 딸로 받아달라"고 호소했다.

정세균 후보는 "광주는 위험할 때마다 기적을 창출했다. 광주시민이 뜨겁게 불타올 때 우리는 승리했다"며 구어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Global Top Green & Smart Energy Pioneer 첨단 2단계 전력공급을 위한 전선관 매설공사 안내

무등빌딩임대 무등산이 보이는 최상의 조망권, 지하철 역세권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권

경매투자 자본물건등 특수물건 NPL 부실채권

부실채권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각종공증문서, 대여금, 법원판결문, 운송료